2011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제 1 교시 | 성명 | | 수험번호 | | | | | | 2 | | | |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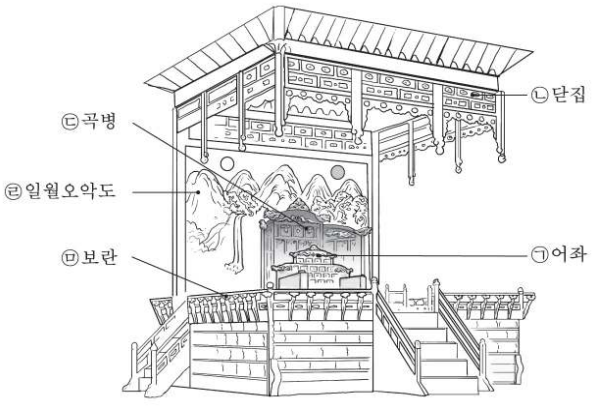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일을 할 때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②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남의 잘못을 감싸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
④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
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의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2. (물음) 문화 해설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옳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3. (물음) 방송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골디락스'라는 용어는 경제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② '골디락스 프라이싱'은 극단적인 선택을 꺼리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한 판매 방법이다.
③ '골디락스 경제'는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④ '골디락스'는 영국 동화 속 주인공 소녀가 알맞은 온도의 수프를 골랐다는 것에 주목해서 생긴 용어이다.
⑤ '골디락스 행성'은 항성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공전하여,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는 행성이다.

[4 ~ 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토론자들의 발언을 순서에 따라 정리할 때, 토론자들이 제시한 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논제	찬성의 논거	반대의 논거
러닝 메이트 방식 도입	출마자들의 선거 준비 부담이 경감됨. ····· ㉠	→ 출마자와 투표자의 권리를 제한함. ····· ㉡
	학생회 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음. ····· ㉢	→ 학생회 내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음. ····· ㉣
	회장과 부회장 간의 의견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 ····· ㉤	→ 의견 조율과 협력의 과정에서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를 수 있음.

① ㉠ ② ㉡ ③ ㉢ ④ ㉣ 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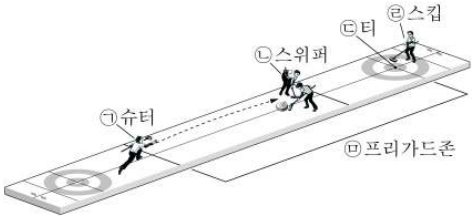
5. (물음) 여학생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물음의 형식으로 상대의 견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②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의견을 비판하고 있다.
③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④ 상대의 의견을 요약한 후 자신의 의견과 절충하고 있다.
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에 착안하여 '모둠별 과제 수행 시 주안점'에 대해 연상하였다.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동계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컬링은 각각 4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번갈아 가며 둥글고 납작한 '스톤'을 링크에 미끄러뜨려, 이를 '티'에 더 근접시킨 팀이 점수를 얻는 방식의 경기이다.

착안점		이끌어 낸 내용
㉠은 목표 지점을 확인하고 '스톤'을 투구함.	⇨	과제 수행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과제를 수행해야 함. ·· ①
㉡은 '스톤'의 진행 방향과 빠르기를 조절함.	⇨	과제 수행 과정을 목표에 맞게 조정하고 알맞은 속도로 진행해야 함. ····· ②
㉢에 '스톤'을 가장 가깝게 놓아야 함.	⇨	과제 수행 시에는 목표 수준에 최대한 도달해야 함. ····· ③
㉣은 목표 지점에 '스톤'을 놓기 위해 작전을 세움.	⇨	과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함. ····· ④
㉤에서는 상대팀의 '스톤'을 밀쳐 낼 수 없음.	⇨	과제 수행 시 모둠 구성원들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⑤

7. <보기>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신문 기사

우리나라 학생들의 취침 시각이 갈수록 늦어지면서 고등학생의 77% 이상이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 무력감, 정서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은 늦게 자는 이유로 '과중한 학습량', '잦은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사용' 등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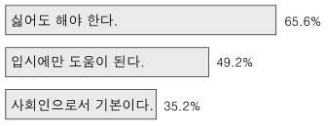
(나) 통계 자료

1. 각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및 수면·학습 시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핀란드
삶의 만족도*	44.9%	78.3%	81.6%
수면 시간	7시간 30분	8시간 47분	8시간 31분
학습 시간	7시간 50분	5시간 4분	6시간 6분

* 최저 1점에서 최고 10점 중 만족도 7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임.

2. 공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설문 항목 하나에 복수 응답한 결과임.)

3. 우리나라 학생 중 35.8%만이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다) 인터뷰

"부모님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어서 대화도 부족하고 때로는 거리감도 느껴져요. 게다가 부모님께서는 고등학생이라고 공부하라는 말씀만 하시지, 저의 마음은 몰라주세요."

–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라) 연구 자료

우울증, 정서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인, 부모와의 친밀감,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가정적 요인, 그리고 학업, 교우 관계 등과 같은 학교 생활적 요인 등이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

① (가)와 (나)-1을 활용하여,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부족한 수면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과중한 학습량을 경감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② (가)와 (나)-3을 활용하여, 잦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가정생활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한다.

③ (나)-2와 (라)를 활용하여, 학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임을 제시한다.

④ (나)-3과 (다)를 활용하여, 가정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 변화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⑤ (다)와 (라)를 활용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8. <보기>를 읽고 학교에 건의하는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였다.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생자치법정은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료 학생들이 조사, 변호, 판결을 맡아 자치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 학생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일부

〈 개 요 〉

제목 :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건의

Ⅰ. 도입
–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고조

Ⅱ. 전개
1. 운영 실태
–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통한 준법정신 함양 ····· ㉠
2.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걸림돌
가.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의 역할 ····· ㉡
나. 학생자치법정 개최를 위해 배정된 시간 부족
다.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위한 공간 부족과 시설 미비
3.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내실화 방안 ····· ㉢
가.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 실시
나. 학생자치법정의 개최를 위한 시간 확보
다.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통한 교칙 준수 풍토 정착 ····· ㉣

Ⅲ. 정리
– 학생자치법정의 올바른 이해 촉구 ····· ㉤

① ㉠은 상위 항목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학생자치법정의 형식적 운영'으로 고친다.
② ㉡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의 담당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바꾼다.
③ ㉢에는 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와 시설 마련'이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④ ㉣은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학생자치법정의 도입에 대한 관심 고조'로 대체한다.
⑤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학교 차원의 적극적 지원 건의'로 바꾼다.

[9 ~ 10] 다음은 교지에 실을 '○○산 둘레길 여행기'의 초고이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A]

○○산 둘레길은 산자락 곳곳에 걸쳐 있는 옛길, 오솔길, 마을길들을 원형으로 연결한 약 300Km의 도보 길로서, 모두 6코스로 구성돼 있다. ㉠ 그래서 우리 반은 다랑이논의 경치가 빼어나다는 제3코스를 다녀왔다.

학교에서 출발한 버스가 ○○산에 ㉡ 정착한 시각은 12시였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설레는 마음으로 둘레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래서 숨이 차올랐지만, 가을 숲의 아름다움에 힘든 것도 잊었다. ㉢ △△마을까지 가는 길은 제법 가파른 산길이었다.

만추의 나무들이 계절을 노래하는 길 위에서 우리들은 신이 나서 깔깔거렸다. 드디어 △△마을에 이르렀을 때, 석양을 받아 금빛으로 물든 풍경을 보며 나는 여행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여행은 또 다른 세상과 만나는 방법이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 여행하는 동안 사진에 많은 것을 담아 오지 못해 아쉬웠다. 나는 둘레길 여행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참다운 나를 만나고 왔다. 갑갑한 일상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산 둘레길을 친구들과 걸었던 그 시간은 ㉤ 오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9. 위 글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문맥을 고려하여 '그중'으로 바꿔야겠어.
② ㉡은 단어가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도착한'으로 바꿔야겠어.
③ ㉢은 문장 간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바로 앞의 문장과 맞바꿔야겠어.
④ ㉣은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삭제해야겠어.
⑤ ㉤은 문장 성분 간 호응을 고려하여 '오랜 추억이다.'로 바꿔야겠어.

10. [A]에 적합한 제목을 작성하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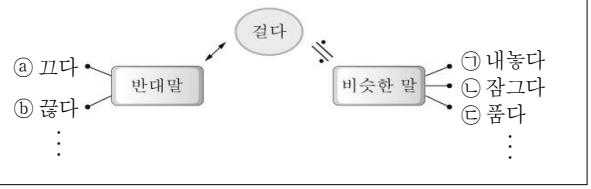
〈 보 기 〉

○ 감각적 표현을 사용할 것
○ 대구의 표현 방식을 활용할 것
○ 글에 드러난 여행의 의미를 포함할 것

① 세상을 내려놓고 걷는 둘레길
세상을 떠올리며 걷는 옛길
② 사는 일의 지루함, 여행의 즐거움
둘레길 위에서 낯선 나를 만나다
③ 여행이 끝난 곳에서 삶을 떠올리다
금빛 추억을 담은 너와 나의 둘레길
④ 단풍 그늘에 물들며 둘레길을 걷는다
붉은 산 굽이 도는 둘레길 위에 서서
⑤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 참된 나와의 만남
둘레길, 그 향기로운 추억을 떠올리며

11. <보기>의 '걸다'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① '그는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다.'에서 '걸다'는 ㉠으로 대체할 수 있겠군.
②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서울로 출발했다.'에서 '걸다'의 반대말은 ⓐ가 되겠군.
③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걸었다.'에서 '걸다'는 ㉡으로 대신할 수 있겠군.
④ '어머니는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살았다.'에서 '걸다'는 ㉢으로 바꾸어 쓸 수 있겠군.
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약속하였다.'에서 '걸다'와 반대되는 말은 ⓑ가 되겠군.

12. <보기>는 '구개음화'에 대한 탐구과제를 수행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탐구과제 :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 국어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 현상을 검토하시오.

기본 자료

굳이[구지], 같이[가치], 붙이다[부치다]
→'ㄷ,ㅌ'은 'ㅣ'모음 앞에서 'ㅈ,ㅊ'으로 발음된다.

심화 자료

ⓐ 붙여[부처], 닫혀[다쳐]
ⓑ 마디(節)[마디], 티[티]
ⓒ 미닫이[미다지], 낱낱이[난나치]
ⓓ 홑이불[혼니불], 밭이랑[반니랑]
ⓔ 묻히다[무티다→무치다], 갇히다[가티다→가치다]

심화 자료를 통한 검토 내용

ⓐ : 구개음화는 모음 'ㅣ'뿐만 아니라 'ㅕ' 앞에서도 일어난다. ·· ①
ⓑ : 구개음화는 한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 ②
ⓒ : 구개음화는 두 번째 음절 이후에서도 일어난다. ····· ③
ⓓ :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에도 일어난다. ··· ④
ⓔ : 구개음화는 두 자음이 하나로 축약된 다음에도 일어난다. ··· ⑤

[13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현(香峴)

박두진

아랫도리 다박솔 깔린 산 넘어 **큰 산 그 넘엇산** 안 보이어 내 마음 둥둥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 묵중히 엎드린 산,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루 다랫넝쿨 바위 엉서리*에 얽혔고, 삽삽이 떡갈나무 억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 산, 산들! 누거 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리함 즉하매**,

산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엎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칡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엉서리 : 사이.
* 누거 만년(累巨萬年) : 아주 오랜 세월.

(나) 꽃씨

문병란

가을날
빈손에 받아 든 작은 꽃씨 한 알!

그 숱한 잎이며 ⓐ 꽃이며
찬란히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빛나는 ㉠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여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비애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기인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다) 침엽수 지대

김명수

깊은 밤 눈 덮여 ⓒ 고적한 곳에
꼿꼿이 머리를 하늘에 두고
ⓑ 침엽수들이 서 있다

먼 산맥을 이어
내어달리고 싶은 마음이건만
㉣ 푸르른 정열에 가두어두었다

눈이 내리면 온몸에 흰눈을 이고
바람이 불면 우우 소리를 낸다

일월성신 잦은 계절의 변화에도
잎새조차 변하지 않음은 태고적 고독인가

㉤ 차운 바람 부는 날에도
나무는 오히려 위엄을 잃지 않는다

그러기에 겨울밤 차가운 별도
침엽수 머리 위에 더욱 반짝인다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과 관련지어 대상의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②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③ 시상의 반전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④ 감정의 절제를 통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⑤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향현」에는 일제 강점기에 민족공동체가 처한 고압적이고 잔혹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려는 작가 의식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작품 속의 자연은 시인의 상상에 의해 여과되고 굴절된 과정을 거친 '새롭게 태어난 자연'이며,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 수 있기를 염원하는 작가의 바람이 깃들어 있는 공간이다.

① '큰 산 그 넘엇산'은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며 화자가 마음속으로 염원하고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군.
② '무수한 짐승'은 산을 구성하는 존재들로 화자는 이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바라고 있군.
③ '너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리함 즉하매'에는 암울한 상황에 대해 답답해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군.
④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에 의해 부정적 현실이 타개되기를 화자는 기다리고 있군.
⑤ '여우 이리 등속'은 평화롭게 살아가는 약자들의 삶을 유린할 강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군.

15.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능동적 존재이며, ⓑ는 수동적 존재이다.
② ⓐ는 선망의 대상이며, ⓑ는 연민의 대상이다.
③ ⓐ는 변화하는 존재이며, ⓑ는 항구적 존재이다.
④ ⓐ와 ⓑ는 모두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⑤ ⓐ와 ⓑ는 모두 시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 : '핏빛 꽃들'이 '몸부림'하는 시기로, 내면적 성숙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② ㉡ : '만져지는' 느낌을 무게감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때, 꽃씨가 지닌 의미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 : '깊은 밤 눈 덮여' 있는 곳으로, 어둡고 추운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④ ㉣ : '내어달리고 싶은 마음'을 '가두어두었다'는 표현과 관련지어 볼 때, 욕망을 제어하고 있는 내적 의지로 볼 수 있다.
⑤ ㉤ : '오히려 위엄을 잃지 않는다'라는 구절로 보아 '나무'의 가치를 더욱 부각하고 있다.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자신이 가진 특정한 능력을 통해 궁극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긍정하는 입장을 서양철학에서는 표상주의라고 한다. 표상주의는 근대인식론의 바탕을 이루며, 서양철학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이와 달리 신실용주의 철학자 로티는 표상주의를 비판한 '반(反)표상주의'를 통해 서양철학의 새로운 방향을 ⓐ 모색하였다.

로티의 반표상주의는 넓은 의미로 '반(反)플라톤주의'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가 진정한 진리의 세계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데아를 모사(模寫)한 거짓 세계라고 보았다. 이렇게 진리의 세계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고 보는 플라톤의 관점은 서양철학의 역사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되었다. 이후 플라톤의 전통을 ⓑ 계승한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진리의 세계를 비출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본질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로티는 이들이 진리의 세계를 비춘다고 믿었던 거울이 비춘 것은 사실은 자신의 모습이며, 이들이 이야기한 진리는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역사적이고, 개별적이며, 상대적인 것임을 철학의 흐름 속에서 확인하였다. 즉 로티는 이들의 거울에 비친 진리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로티는 거울과 같은 인간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거울이미지(mirror image)'는 우연히 발생한 하나의 비유에 ⓒ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로티는 이처럼 우리가 궁극적 진리를 비출 수 없다면 결국 철학은 세계에 대해서 각자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재서술하는 문학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데 소설 쓰기나 시 쓰기와 같은 문학적 작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로티는 새로운 철학적 방향으로 ㉠ '문학적 문화(literary culture)'를 제안했다.

로티가 말하는 문학적 문화는 관념적 차원에서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대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물음들을 통해서 ⓓ 탐색할 수 있는 참된 의미들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다. 또한 누구나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참된 의미들을 창조하고, 이를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는 문화이다. 로티는 문학적 문화를 통해 사적 영역에서는 자신의 인식과 신념을 끝없이 쇄신하고, 공적 영역에서는 구성원 간의 대화를 통해 다른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인정하면서 '우리'라는 연대성을 ⓔ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1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① 표상주의는 서양철학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② 반표상주의는 플라톤주의와 대립되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③ 플라톤의 전통을 계승한 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진리를 비추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④ 로티는 문학적 문화를 관념적 차원에서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⑤ 로티는 플라톤의 전통을 계승한 철학자들이 내세운 진리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18. ㉠의 특성이 나타난 현대인의 삶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속 집단 속의 삶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모습
② 유행을 무분별하게 따르기보다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
③ 행동이 앞서는 실천적 삶보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우선시하는 모습
④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구성원 간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하는 모습
⑤ 지속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일회적이고 표면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모습

19. 위 글의 '로티'가 <보기>를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듀이는 삶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탐구'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듯 탐구의 대상도 끊임없이 달라지며, 문제는 같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점에서 듀이는 서양 철학자들이 진리라고 말해 왔던 것들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① 듀이는 플라톤주의 철학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군.
② 듀이는 연대의식을 추구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있군.
③ 듀이는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부정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군.
④ 듀이가 말한 삶 속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는 문학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 있겠군.
⑤ 듀이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 것은 자신이 창조한 의미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문화와 관련이 있군.

20. ⓐ~ⓔ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 알려주었다 ② ⓑ : 이어받은 ③ ⓒ : 지나지 않은
④ ⓓ : 찾을 ⑤ ⓔ : 넓혀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명나라 남양 땅의 양산백과 평강 땅의 추양대는 운향사에서 서로 만나 가연을 맺기로 약속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추양대는 아버지에 의해 심의량과 결혼을 하게 된다. 이를 알게 된 양산백은 추양대가 왕래하는 길에 자신의 시신을 묻어 줄 것을 부모에게 부탁하며 상사병으로 죽은 후, 추양대의 꿈에 나타난다.

산백이 낙루 왈,
"나는 그대로 말미암아 지하의 원혼이 되었거니와, 우리 백발 양친에게 불효를 끼치어 죽은 혼이라도 죄를 면치 못할지라. 그러하나 나 죽을 때에 부친께 청하여 낭자의 신행(新行)*하여 가는 길가에 부디 묻어주시고, 한 봉서를 낭자에게 부쳐주소서 하였으니, 낭자는 그 서간을 찾아보라."
하며 슬피 울거늘, 소저 그 말을 듣고 또한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놀라 깨달으니 침상일몽이라. 이에 일어나 슬피 왈,
"그는 남자로되 신(信)을 지키어 능히 죽었거늘, 나는 여자로서 오히려 그저 살았으니, 후일에 무슨 낯으로 양랑을 보리요."
하더니, 이후로부터 양생이 밤이면 소저와 침석을 한가지로 하여 즐기는지라. 일일은 소저 문왈,
"낭군이 어찌하여 낮이면 종적이 없고 밤이면 오시나뇨?"
산백이 탄왈,
"유명의 길이 다르기로 그러하거니와, 오래지 않아 백주에도 다니며 즐기리라." 하더라.
일일은 소저 문득 한 계교를 생각하여 내당에 들어가 모친께 고왈,
"소녀 듣사온즉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것은 여자가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이므로 떳떳한 바라 하거늘, 소녀 군자와 성례한 지 이미 오래오되 시부모께 찾아뵙지 못하였사오니 예를 차려 구가(舅家)*로 가고자 하나이다."
한대, 상서 부부 대희하여 즉시 예법에 맞게 준비하여 칠보 가마에 채의 시녀 옹위하여 구가로 보낼새, 소저 하직 왈,
"소녀 금일 슬하를 떠나오매 이후 자애로운 얼굴을 다시 뵈올 기약이 없사오니, 바라건대 부모는 장수를 누리소서."
하거늘, 상서 부부 왈,
"네 이제 신행하여 구가로 가거늘 어찌 불길한 말을 하여 나의 심사를 어지럽히느뇨." 하더라.
차설, 이때 산백의 영혼이 부모께 꿈에 나타나 왈,
"명일 추낭자 신행하여 저의 구가로 가오니 부디 그 서찰을 전하여 주소서."
하고 문득 간데없거늘, 공의 부부 몽사를 서로 말하며 슬퍼하다가 날이 이미 밝으매 창두를 당부하여 왈,
"이 봉서를 가지고 공자의 묘지 근처에 있다가 추상서 집 신행을 물어 추소저께 서간을 올리라."
하니, 창두 명을 받들어 운남산 항림 고개에 이르러 기다리니 이윽고 과연 신행이 나아오거늘, 창두 추상서 집 신행임을 탐지한 후 가까이 나아가 서간을 올리며 남양 양상서 집 하인이라 한대, 소저 이미 짐작하고 문 왈,
"저 묘지는 뉘 집 묘지뇨?"
창두 왈,
"우리 집 소주인의 묘지로소이다."
하거늘, 연망히 서찰을 펴보고 심중에 혜오되,
'양생이 죽은 것이 분명하니, 내 어찌 홀로 살아 무엇하리요.'
하고 교자에서 내려 양생의 묘전에 앉으며 심생을 향하여 왈,
"이곳은 예전 운향사에서 동고하던 양산백의 무덤이라. 사생결의하여 천지께 맹세하였던 바로, 이제 이미 이곳에 이르러 그저 지나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 신령이나 위로코자 하나니 괴이히 여기지 마소서."
심생이 노왈,
"남녀유별하거늘, 아무리 유명이 다르나 어찌 부인이 남자에게 제사를 지내 타인의 시비를 취코자 하느뇨."
하며 가기를 재촉하니, 소저 다시 화성유언(和聲諭言)*으로 애걸 왈,
[A] "첩이 어찌 꺼려하고 의심스러운 일임을 모르리요마는 성인도 형편에 따라 임기응변을 행하시는 곳이 있는지라. 이제 와 약속을 저버리면 귀신이라도 그리 여길지니, 비록 남녀 차이가 있으나 한번 묘지에 제사를 지냄이 무슨 방해로움이 있으리요."
하거늘, 심생이 그 마음이 굳음을 보고 이에 마지못하여 허락하는지라. 소저 이에 묘지 앞에 나아가 제물을 벌이고 제문을 읽으니 그 뜻을 이루 기록지 못할러라.
이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두운 구름이 참담하며, 사면에 안개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지라. 심생 일행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의심하고 두려워 당황하더니, 문득 일진 대풍이 무덤 위로 일어나며 무지개빛이 비치면서 무덤이 갈라지거늘, 추씨 대희하여 치마를 거두쳐 안고 몸을 날려 묘지 중으로 뛰어드니, ㉠ 일행이 대경하여 급히 소저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긴즉, 그 치마 썩은 풀같이 무너져 나비 되어서 땅으로 날아가고 무덤은 전과 같이 어우러지더라.

(중략)

차설, 이때 양산백과 추양대의 혼령이 가볍고 높게 떠서 [방장산]에 이르니, 태을선이 문왈,

"그대 양인의 인간 재미 어떠하뇨?"

양생이 절하여 왈,

[B] "생의 인간 고초 이를 것이 없거니와, 다만 추양대와 더불어 인연을 맺지 못하고 청춘에 횡사하여 원혼이 되었사오니, 청컨대 소생과 추씨로 하여금 후생연분(後生緣分)을 잇게 하소서."

진인 왈,

"차후 인간 고락이 다하지 못하였거늘 인연 잇기가 무슨 근심이 있으리요."

하고 즉시 지장왕께 여쭈니, 왕이 황건역사를 명하여 이르되,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인간에 내려가 혼백을 육신에 붙이고 오라."

한대, 역사 명을 받들어 양인을 거느려 [운남산]으로 향할새, 한곳에 다다르니 산수는 수려하고 화초는 난만한데 단청을 곱게 하여 아름답게 꾸민 집이 아득하며 수놓은 문과 담장이 영롱하거늘, 양생이 문왈,

"이곳은 어디이며, 이 집은 뉘 집이뇨?"

역사 왈

"그대 인생살이에 시력이 상하여 고향을 모르는도다. 이 산은 [봉래산]이요, 이 집은 수정궁이라. 전일 그대 삼신산 신선과 더불어 풍경을 완상하여 세월을 보내더니, 이월 그믐은 영보도군(靈寶道君)의 탄일이라. 상제 잔치를 열어 즐기실새, 이때 낭자 참례하였다가 일시 춘정을 이기지 못하여 그대와 더불어 외통함을 상제 아시고 그대 양인을 적강*하시니라." 하더라.

차시는 추구월(秋九月) 보름이라. 월출동령하여 청광이 조용한 곳에 한 줄 무지개 월궁으로부터 일어나 하나는 추씨의 무덤에 박히고 하나는 양생의 무덤에 박히더니, 문득 두 무덤이 일시에 갈라지며 무덤 속 오운(五雲)이 일어나는 곳에 두 사람의 시체가 움직여 일어나며 무지개 다리를 좇아 한곳에 모이매, 서로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들입다 붙들고 왈,

"오늘날 우리 양인의 만남이 어찌 천정(天定)이 아니리요."

하고, 서로 이끌어 [평강]으로 향하여 가니라.

– 작자미상, 「양산백전(梁山伯傳)」 –

* 신행 : 혼인 때 신랑이 신부집에 가거나,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는 일.
* 구가(舅家) : 시댁.
* 화성유언(和聲諛言) : 부드러운 음색과 아첨하는 말로.
* 적강 :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거나 사람으로 태어남.

2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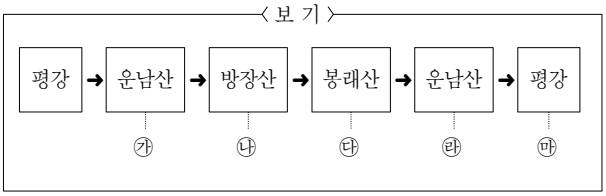
① 추양대는 양산백의 서찰을 받게 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② 추양대는 심생과 혼인한 후 양산백을 잊으려 애쓰고 있었다.
③ 양산백은 죽기 전에 추양대에게 전할 편지를 미리 써 두었다.
④ 양산백의 부모는 양산백이 꿈에 나타나서 한 부탁을 들어 주었다.
⑤ 심생은 추양대가 양산백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22. [A]와 [B]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여, [B]에서는 사회적인 통념을 제시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② [A]에서는 다양한 비유를 활용하여, [B]에서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③ [A]에서는 성인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B]에서는 기구한 운명을 하소연하면서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있다.
④ [A]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B]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부드러운 어투로 말하고 있다.
⑤ [A]에서는 상대방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B]에서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23. 위 글의 공간을 사건 전개에 따라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① ㉮에서 추양대는 창두를 통해 양산백의 무덤을 확인하게 된다.
② 추양대가 양산백의 무덤에 뛰어 든 후, 두 사람의 혼령은 ㉯로 이동하게 된다.
③ 양산백은 ㉰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④ ㉱에서 양산백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 추양대를 구하게 된다.
⑤ 양산백과 추양대는 다시 환생하여 ㉲로 되돌아간다.

24. ㉠에 대해서 독자가 <보기>와 같이 반응하였다고 할 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심생의 입장에서는 (　　)할 만한 상황이겠군."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② 동병상련(同病相憐)
③ 망연자실(茫然自失)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⑤ 희희낙락(喜喜樂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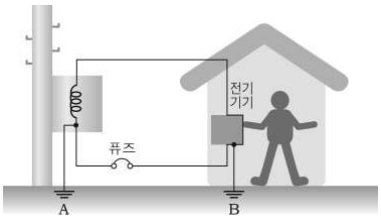
[25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기는 편리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지만, 누전이 발생하면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접지'이다. 접지란 다양한 형태의 금속인 접지전극을 땅에 묻고 이를 전기기기 및 설비의 일부와 전선으로 연결하여 누전 전류를 접지전극으로 흐르게 하여 땅으로 흡수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접지에는 외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가정으로 전달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설비접지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에 설치하는 기기접지가 있다. 설비접지는 수전설비*와 연결된 접지선을 변전실로 모아서 접지전극과 연결하는 것이고, 기기접지는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전기기기와 연결된 접지선을 각 층 또는 각 방의 내벽에 있는 접지판에 연결한 다음, 이를 모아서 접지전극과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 감전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접지의 원리는 무엇일까?

접지전극과 사람의 몸은 모두 전류에 대한 저항이 있는데 이를 접지저항과 인체 접촉저항이라고 하며 그 크기는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설비접지 전극의 저항은 20Ω*, 기기접지 전극의 저항은 100Ω이다. 인체 접촉저항은 평상시에 약 30~50kΩ이지만, 인체가 젖어있을 경우에는 그 값이 1kΩ 정도로 낮아진다.



<그림>

<그림>은 누전이 발생한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A와 B는 각각 설비접지 전극과 기기접지 전극이다. 만약 A와 B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누전에 의해 새어나가는 전류가 몸 쪽으로 흐르게 되어 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류는 저항이 작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으므로, 접지전극을 설치하면 저항이 큰 몸 쪽보다는 저항이 작은 접지전극 쪽으로 전류가 분산되어 감전 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극히 작은 전류가 몸 쪽으로 흐를 수 있는데, 전류의 크기는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므로 저항의 크기가 매우 작은 A와 B로 더 큰 전류가 흐른다. 이로 인해 퓨즈가 녹아 끊어져, 몸 쪽으로 흐를 수 있는 작은 전류 또한 차단되어 감전에 따른 사고를 보다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설비접지와 기기접지는 누전 시 발생하는 전류를 땅으로 흡수시킴과 동시에, 접지저항과 인체 접촉저항의 차를 이용하여 감전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인 것이다.

* 수전설비 : 외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시설.
* Ω(옴) : 저항의 크기(값)를 나타내는 단위. 1kΩ=1000Ω.

25. 위 글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물음은?

① 접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② 설비접지와 기기접지의 차이는 무엇일까?
③ 접지에 사용되는 금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④ 저항의 크기와 전류의 크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⑤ 접지는 누전 전류를 어디로 흡수시키려는 기술인가?

26. 위 글로 보아, ㉠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단, <, =, > 는 저항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 기호임.)

① 설비접지 저항 < 기기접지 저항 < 인체 접촉저항
② 설비접지 저항 < 기기접지 저항 = 인체 접촉저항
③ 설비접지 저항 > 기기접지 저항 > 인체 접촉저항
④ 설비접지 저항 > 기기접지 저항 = 인체 접촉저항
⑤ 설비접지 저항 = 기기접지 저항 > 인체 접촉저항

27. 위 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씨는 설거지를 하다가, 전자레인지에서 데우던 음식을 꺼내려 하였다. 전자레인지에 젖은 손을 댄 순간, 감전으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① 누전된 전류는 몸보다, 저항이 큰 접지전극 쪽으로 흘러갔겠군.
② 전자레인지에 설비접지가 이루어졌다면 감전당하지 않았겠군.
③ 전자레인지 자체의 저항 크기가 접지전극의 저항 크기에 영향을 주었겠군.
④ 기기접지보다는 설비접지 쪽으로 더 많은 전류가 흐른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겠군.
⑤ 인체 접촉저항의 크기가 평상시보다 매우 낮은 상태였던 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이겠군.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음식점에 가보면 'A세트 정식'이니 혹은 'B세트 정식'이니 하는 이름으로 요리 몇 가지를 묶어 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묶어 파는 판매 전략을 '묶어팔기(bundling)'라 한다.

기업이 묶어팔기를 하는 궁극적인 동기는 이윤 극대화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 상품들을 따로 팔 때보다 묶어 팔 때 이윤이 더욱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 도시에 하나밖에 없는 샌드위치 전문점과 이를 찾는 두 고객(민서, 동원)이 있다고 하자. 이 가게는 주스와 샌드위치를 팔고 있는데, 각 상품에 대해 두 사람이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주스	샌드위치
민서	3,000원	5,000원
동원	2,000원	7,000원

* 가격 결정 시 생산 단가는 매우 낮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샌드위치 전문점은 수입(收入)을 가능한 한 크게 만들려고 한다고 가정한다.

[A] 만약 주스와 샌드위치를 묶어 팔지 않고 따로 판다면 주스는 2천 원, 샌드위치는 5천 원에 가격이 정해진다. 그래야 두 사람이 주스와 샌드위치를 모두 사 먹게 되기 때문인데, 이 경우 샌드위치 전문점의 수입은 1만 4천 원이 된다. 그런데 주스와 샌드위치를 묶어서 팔기로 한다면 민서의 경우 8천 원, 동원이의 경우 9천 원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러므로 8천 원의 가격에 이 둘을 묶어 두 사람 모두에게 팔 경우에는 수입이 1만 6천 원으로 증가한다.

이 예에서 보는 것처럼 묶어팔기를 할 때의 수입이 따로 팔 때의 수입보다 더 커지는 데에는 민서와 동원이의 상품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는 사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로 팔 때는 두 사람 모두에게 상품을 팔기 위해서 두 상품에 대한 지불용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이 각 상품의 가격으로 결정되지만, 묶어팔기의 경우 두 상품에 대한 지불용의 금액의 합 중 낮은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민서가 동원이보다 주스뿐 아니라 샌드위치에 대해서도 더 큰 금액을 낼 용의가 있다면, 따로 파는 경우와 묶어 파는 경우의 수입이 동일하다.

묶어팔기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우선 가격 규제가 적용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묶어 판매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묶어 파는 방식을 선택하여 특정 상품에 대해 경쟁기업 몰래 가격 할인을 함으로써 경쟁사를 시장에서 몰아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판매 전략은 경쟁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묶어팔기가 효율성을 제고하기도 한다. 여러 상품을 묶어 팔면 소비자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지 않아도 되고, 생산자는 상품을 유통시키는 데 지불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28. 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핵심이 되는 용어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다.
② 생활과 관련된 화제를 서두에 언급하고 있다.
③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글을 전개하고 있다.
④ 구체적 상황을 가정하여 특정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⑤ 특정 현상에 대한 대비되는 두 관점을 절충하고 있다.

29. [A]와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가)는 ○○지역, (나)는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패스트푸드점으로, (가)를 찾는 고객은 '갑, 을' (나)를 찾는 고객은 '병, 정'이 있다고 하자. 두 패스트푸드점은 각각의 고객에게 햄버거와 감자튀김 두 가지 모두를 판매하여 수입을 가능한 한 크게 만들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각 고객이 (가)와 (나)에서 판매하는 상품 한 단위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가)

	햄버거	감자튀김
갑	4,500원	1,500원
을	3,500원	2,000원

(나)

	햄버거	감자튀김
병	4,000원	1,500원
정	3,500원	1,000원

* 햄버거 및 감자튀김의 생산 원가는 무척 낮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가)가 햄버거는 3,500원, 감자튀김은 1,500원에 따로 판다면 '갑'과 '을' 모두가 두 상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② '갑'과 '을'의 지불용의 금액을 고려할 때, 햄버거에 대해서는 '갑'이, 감자튀김에 대해서는 '을'이 더 큰 금액을 낼 용의가 있다.
③ 햄버거와 감자튀김에 대한 '을'의 지불용의 금액의 합이 '갑'보다 낮으므로 (가)는 '갑'을 기준으로 하여 묶어 팔 때의 가격을 정할 것이다.
④ (나)가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묶어서 4,500원에 판매할 경우 '병'과 '정' 모두가 두 상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⑤ '병'이 두 상품 모두에 대해 '정'보다 더 큰 금액을 낼 용의가 있으므로 (나)는 두 상품을 따로 팔 때와 묶어 팔 때의 수입이 동일하다.

30.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 A사는 어묵과 햄에 대해 시장 독점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신생 업체가 어묵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자, A사는 독점력을 잃지 않기 위해 어묵에 매우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햄과 함께 묶어 판매하였다.
-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상품을 생산하는 B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와 내비게이션을 함께 묶어 판매하였다.

① A사의 판매 전략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방해할 수 있겠군.
② A사는 소비자의 효율성을 위하여 어묵에 대한 가격할인을 실시했겠군.
③ B사는 자동차와 내비게이션을 함께 판매하여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군.
④ B사는 묶어 파는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기에 앞서 소비자의 지불용의 금액을 고려하겠군.
⑤ 자동차와 내비게이션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B사를 이용하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겠군.

[31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푸른 산봉우리 옆에 집을 엮고서 結屋倚靑嶂
병을 들고서 맑은 ㉠ 시냇물을 담았네. 携甁盛碧溪
길은 대숲 사이로 가늘게 나 있고 逕因穿竹細
울타리는 산이 보이게 나지막하네. 籬爲見山低
㉡ 바위를 베면 두건에 이끼가 묻고 枕石巾粘蘚
꽃을 심으면 진흙에 신발 자국 찍히네. 栽花屐印泥
번화한 세상은 꿈에도 가지 않으니 繁華夢不到
한가한 맛은 호젓한 집에 있다네. 閑味在幽栖

– 권응인, 「산거(山居)」 –

(나) 육곡(六曲)은 **어드믜고 조협(釣峽)***에 물이 넙다.
나와 **고기**야 뉘야 더욱 즐기는고.
황혼(黃昏)에 ㉢ 낙대를 메고 대월귀(帶月歸)*를 **ᄒᆞ노라**.

<제7수>

칠곡(七曲)은 어드믜고 풍암(楓巖)에 **추색(秋色)***이 좃타.
청상(淸霜)이 엷게 치니 **절벽(絶壁)**이 금수(錦繡)로다.
한암(寒巖)에 혼자 안자셔 ㉣ 짚을 잇고 **잇노라**.

<제8수>

팔곡(八曲)은 어드믜고 **금탄(琴灘)***에 돌이 붉다.
㉤ **옥진금휘(玉軫金徽)***로 수삼곡(數三曲)을 노는 말이,
고조(古調)를 알이 업스니 혼ᄌᆞ 즐겨 **ᄒᆞ노라**.

<제9수>

구곡(九曲)은 어드믜고 문산(文山)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 속에 뭇쳣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ᄒᆞ고 볼 것 업다 **ᄒᆞ더라**.

<제10수>

–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

* 조협(釣峽) : 낚시하기에 좋은 골짜기.
* 대월귀(帶月歸) : 달과 함께 돌아옴.
* 추색(秋色) : 가을철의 빛. 또는 가을철을 느끼게 하는 경치나 분위기.
* 금탄(琴灘) : 악기를 연주하며 노는 시냇가.
* 옥진금휘(玉軫金徽) : 아주 좋은 거문고.
* 세모(歲暮) : 한 해가 저물 무렵.

(다) 나는 스스로 호(號)를 **여헌(旅軒)**이라 하고 일정하게 머무르는 집이 없이 발길 닿는 곳에 그대로 거처하였다. 지난번에 태백산으로부터 일선(一善)* **월파진의 동점(東店)**에 이르러 임시로 거처하였으니 이곳은 바로 냉악(冷岳) 밑이다. 내가 여기에 머문 지도 삼 년 가까이 되는데, 무더운 여름에는 비좁은 당(堂)에 사람은 많고 **파리와 벌레**에 시달리는 것이 괴로워 젊은이들과 더불어 당 앞에 나아가 산보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당 앞에는 조그만 시내가 있는데, 이 시냇물은 냉악에서 발원하여 십 리쯤 흘러 이곳 월파진에 이르는 것이다. 당 앞에 이르러서는 조금 깊어지기는 하지만 겨우 무릎이 잠기는 정도이고 폭도 겨우 한 길 남짓 된다. 시내의 양쪽 언덕에는 오래된 버드나무 두어 그루가 있는데 가지가 무성하여 냇물을 뒤덮을 정도이다. **시내와 버드나무**가 서로 어우러져 냇물은 상쾌함을 풍기고 버드나무 또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마음에 들어, 앉고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 하였다. 마침내 젊은이들과 함께 궁리하여 규모를 정하고 이웃의 친구에게서 가로지를 만한 상수리나무 두 개를 얻어 오고 젊은이들에게 쓸 만한 나무 수십 개를 베어 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긴 나무는 세로로 놓고 짧은 나무는 가로로 놓아 칡덩굴로 단단하게 엮으니 이에 평상이 완성되었다. 그것이 시내에 걸쳐 있으므로 '**계상(溪牀)**'이라고 이름 붙였다. 다만 그 지세가 낮고 좁아 훤하게 탁 트인 경관이 없어 아쉽지만,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속세의 잡다한 일들을 이 계상에 의지하여 모두 다 나의 눈과 귀에서 떨쳐 버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윽하고 고요한 정취를 느낄 수 있으니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략)

아, 이 평상은 애당초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우연히 만든 것이었으니 질박하고 졸렬한 채로 놓아두고 애써 깎고 다듬지 않았으므로 나에게 맞다.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떨어져 있고 당우(堂宇)에 이어져 있지도 않으며 땅에 닿아 있지 않고 냇물 위에 걸쳐 있어 그 아래로는 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흐르고 있으니, 내가 찾던 참 즐거움이 바로 이런 것이다.

무릇 만물은 본래 붙어 있던 곳이 없을 수 없지만, 붙어 있는 곳에 집착하여 얽매여 있어도 안 되는 것이다. 오직 자연의 이치에 맡겨서 외물(外物)의 유혹에 이끌리지 말고, 사심(私心) 없이 물(物)이 오가는 대로 두고 천하의 일에 오로지 주장함도 없고,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도 없이 공평하고 바른 마음으로 만나는 바에 따라 마땅하게 잘 처리하고 때에 따라 잘 변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붙어 있으면서도 한곳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 궁하여 뉘우침이 있는 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 헌(軒)에 '여(旅)'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이며 지금 계상을 설치한 것도 집착하지 않는 그 뜻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 장현광, 「계상설(溪牀說)」 –

* 일선(一善) : 지금의 경북 선산(先山).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② 자연물을 인격화함으로써 친근감을 부여하고 있다.
③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④ 공간의 속성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⑤ 중의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학 작품의 구조를 이루는 각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고유한 규칙의 틀에 의해 움직인다. 구조는 요소들을 법칙에 의해 고정시켜 통일감을 주는 동시에, 요소들의 끊임없는 변형을 통해 변화를 추구한다.

① 각 수의 초장은 공통적으로 '어드믜고'라는 물음에 대해 대답하는 방식의 규칙적 틀을 지니고 있군.
② 각 수별로 '고기', '절벽', '옥진금휘', '기암괴석' 등으로 소재를 바꾸어 가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군.
③ 각 수에서 'ᄒᆞ노라', '잇노라', 'ᄒᆞ더라' 등의 종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어조 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군.
④ 제7수의 '조협', 제9수의 '금탄'과 같은 배경은 화자의 행위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군.
⑤ 제8수의 '추색'과 제10수의 '세모'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축으로 한 법칙에서 벗어나고 있군.

33. (가)와 (다)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달리 (다)에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② (다)와 달리 (가)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
③ (가)와 (다)에는 모두 인간의 유한성이 강조되어 있다.
④ (가)와 (다)에는 모두 공동체적 삶에 대한 지향이 담겨 있다.
⑤ (가)와 (다)에는 모두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34. ㉠~㉤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다른 하나는?

① ㉠ ② ㉡ ③ ㉢ ④ ㉣ ⑤ ㉤

35.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장현광은 일선(一善)으로 거처를 옮겨 도학(道學)을 산수자연의 공간에서 몸소 실현하고자 하였다. 즉 명리(名利)와 출사를 포기하고 자유로운 자연환경에서 성리학적 원리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선택으로 정치 참여의 길에서는 멀어졌지만, 도학을 실현하는 학인(學人)으로서의 의지는 한층 굳건해졌다. 그가 일선에 거처하면서 자연을 제재로 쓴 작품들에는 자연에서 이루고자 하는 도의 본모습과 실천 방향,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누리는 즐거움과 여유가 드러나 있다.

① '여헌(旅軒)'이라는 호는 작가가 알아내고자 했던 도(道)의 본모습과 관련이 있겠군.
② '월파진의 동점'은 도학(道學)을 몸소 실현하기 위해 거처한 공간이군.
③ '파리와 벌레'는 정치 참여에 대한 작가의 거부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군.
④ '시내와 버드나무'는 작가가 누리는 즐거움과 여유를 부각하는 소재라 하겠군.
⑤ '계상(溪牀)'의 질박하고 졸렬한 모습은 명리(名利)에 연연하지 않는 작가의 삶을 드러내는군.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선물을 영희에게 주었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성분은 '철수가', '선물을', '영희에게'이다. 이들은 각각 서술어 '주다'에 대해 '행동주(A)', '대상(T)', '도착점(G)'의 역할을 한다. 이것의 집합 [A, T, G]를 서술어 '주다'의 논항구조라 한다. 즉 논항구조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들의 의미 역할 집합을 말한다.

논항구조는 서술어, 특히 본동사의 의미 특성과 관련이 깊다. 이는 본동사가 문장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일견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보조동사는 논항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일까?

(1) ㄱ. 철수가 영희를 만나 주었다.
ㄴ. 철수가 영희를 만났다.

(1-ㄱ)의 논항구조는 [A, T]로 본동사 '만나다'의 논항구조와 일치하며 '주다'의 논항구조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1-ㄴ)처럼 보조동사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보조동사는 논항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경우를 통해 보조동사가 논항구조에 영향을 끼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2) ㄱ. 철수가 영호에게 빵을 던져 주었다.
ㄴ. 철수가 영호에게 빵을 던졌다.
ㄷ. 철수가 영호에게 빵을 던져서 주었다.

(2-ㄱ)의 '주다'는 (2-ㄴ)처럼 생략 가능한 보조동사로도, 또는 (2-ㄷ)처럼 본동사로도 해석된다. 본동사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선행동사 '던지다'와 후행동사 '주다'의 논항구조가 [A, T, G]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행동사가 본동사와 보조동사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는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논항구조가 같으며 필수성분의 의미를 공유하는 경우이다.

(3) ㄱ. 나는 그녀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ㄴ. *나는 그녀에게 책을 읽었다.

(3-ㄴ)처럼 보조동사 '주다'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본동사 '읽다'의 논항구조가 [A, T]라면 (3-ㄱ)의 경우 '그녀에게'라는 '도착점(G)'과 관련된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조동사 '주다'가 '도착점(G)'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보조동사 '주었다'에 '주다(與)'의 어휘의미가 남아 있어 '도착점(G)'이 요구되므로 보조동사 '주었다'가 문장의 논항구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조동사의 논항구조는 문장 사용상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유형은 문장의 논항구조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제2유형은 선행동사와 논항구조가 일치하는 것이며, 제3유형은 문장의 논항구조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3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서술어는 논항구조에 포함된다.
② 논항구조는 주어에 의해 결정된다.
③ 논항구조는 본동사의 의미 특성과 관련이 깊다.
④ 보조동사는 본동사의 논항구조와 동일할 수 없다.
⑤ 본동사와 보조동사는 필수성분의 의미를 공유할 수 없다.

37. 다음 중에서 논항구조가 다른 하나는?

① 우리는 우유를 많이 마신다.
② 아름다운 새가 노래를 부른다.
③ 신사는 소년을 양자로 삼았다.
④ 소녀는 복잡한 책상을 정리했다.
⑤ 그는 무 한 다발을 단숨에 썰었다.

38. 위 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 친구가 내 신발을 가져가 버렸다.
b. 사장은 과장에게 중책을 맡겨 보았다.
c. 재단사는 임금님께 옷을 만들어 바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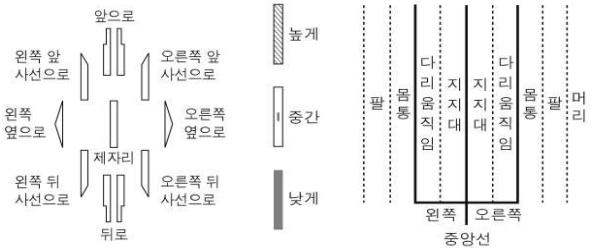
① a의 '버렸다'는 본동사와 보조동사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군.
② b의 '보았다'는 문장의 논항구조에 영향을 끼치는군.
③ b의 '과장에게'는 '보았다'의 논항구조와 관련이 없군.
④ c의 '바쳤다'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군.
⑤ c의 '바쳤다'에는 도착점(G)을 요구하는 어휘의미가 남아 있군.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용은 창조의 순간에 소멸되는 예술로서 오랜 역사 동안 무용가들의 ⓐ 목격과 실행이라는 방법에 의지하여 전해져 왔다. 이러한 무용의 특수성은 무용기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다양한 무용기록법이 개발되었다.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무용기록법은 ⓑ '라바노테이션'이다. 라바노테이션은 무용이론가 '루돌프 본 라반'이 고안한 무용기록법으로, 움직이는 방향, 높낮이, 주체, 시간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인 기호들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우선 '방향'은 모든 방향의 기준이 되는 제자리를 포함하여 9개의 방향 기호들로 구성된다.

'높낮이'는 '낮게', '중간', '높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기호 안을 어떻게 채우느냐로 구분된다. 따라서 9개의 기본 방향과 3개의 높낮이를 조합해 보면 총 27개의 방향 기호들을 얻게 된다.



<방향> <높낮이> <주체 및 보표>

다음으로 움직이는 '주체'는, 음악 악보의 오선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보표(staff) 위에 나타난 기호의 위치로 알 수 있다. 라바노테이션에서 기호들은 세 개의 수직선으로 이루어진 3선 보표 위에 표시된다. 이 중 가운데 선은 중앙선으로 무용수의 신체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는 역할을 한다. 보표는 무용수 관점에서 읽게 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의 오른쪽 칸은 무용수의 오른쪽 신체, 왼쪽 칸은 무용수의 왼쪽 신체를 움직이라는 기호로 읽으면 된다. 즉, 방향 기호가 어떤 칸에 놓였느냐에 따라 그 움직임의 주체가 ㉠ 오른팔일 수도 있고 왼다리일 수도 있다.

3선 보표에는 필요에 따라 보조선을 추가하여 팔, 다리의 세부적인 움직임이나, 허리, 어깨 등의 몸통 부위의 움직임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신체의 어느 부위가 땅에 닿아 몸을 지지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왼쪽 지지대 칸이 채워져 있되 주체를 나타내는 특별한 기호가 없으면 왼발로 서 있는 것이고, 양쪽 지지대 칸이 모두 비어 있다면 신체가 땅에 닿아 있지 않은 점프 상태인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기호의 길이로 나타낸다. 라바노테이션의 3선 보표는 아래에서 위로 읽는다. 아래에서 위로 시간이 항상 일정하게 흐른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보표에 놓이는 모든 기호의 길이는 시간과 바로 직결된다. 기호의 길이가 짧으면 빠른 동작을, 길이가 길면 느린 동작을 나타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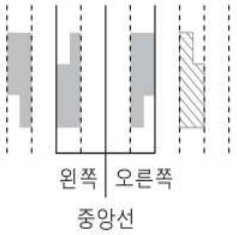
이와 같은 라바노테이션은 다양한 기호를 사용하여 움직임을 기록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고 이를 변형한 다양한 방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어떠한 무용기록법도 아직 완벽하게 인간의 움직임을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움직임의 기록에 대한 필요성은 무용기록법의 꾸준한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39.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용기록의 방법
 – 라바노테이션을 중심으로
② 움직임을 기록하는 방법
 – 음악 악보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③ 라바노테이션의 변화 과정
 – 무용기록법의 발전을 중심으로
④ 무용기록법으로서의 라바노테이션
 – 라바노테이션의 한계를 중심으로
⑤ 다양한 예술 분야의 기록 방법
 – 무용의 시각적인 기호화를 중심으로

4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무용기록을 몸으로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①
②
③
④
⑤

41. ⓐ와 ⓑ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보다 효율적인 전달 방법이다.
② ⓑ는 ⓐ보다 오래 전부터 사용된 방법이다.
③ ⓐ와 달리 ⓑ는 시각적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④ ⓑ와 달리 ⓐ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방법이다.
⑤ ⓐ와 ⓑ는 모두 인간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기록하는 방법이다.

42. <보기>를 참조할 때, 단어의 구조가 ㉠과 같은 것은? [1점]

〈 보 기 〉

'오른팔'은 수식어인 '오른'과 피수식어인 '팔'이 결합하여 형성된 '수식어+피수식어'의 구조를 지닌 합성어이다.

① 강산(江山)　② 밤낮　③ 여닫다
④ 첫인상　⑤ 오르내리다

[43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집배원 판수는 군청 병사계에서 마을로 보낸 전사 통지서를 배달하게 된다. 판수는 이웃들에게 자식들의 죽음을 직접 알려줘야 하는 것에 괴로워하며 주막에서 낮술을 마시고 다시 배달에 나선다.

판수는 곧장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디딤돌을 징검징검 뛰기 시작했다. 돌을 네댓 개 뛰었을 때였다. 찌찌찌— 물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에서 늦매미가 요란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나, 판수는 그만 비틀하며 한쪽 발이 돌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철버덩! 물에 빠지고 만 것이다. 차라리 시원하고 좋았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손에 쥔 편지 뭉치에서 편지 한 장이 그만 물에 떨어지고 만 것이다.

삼십여 년 동안 우편 배달 노릇을 해왔지만, 판수는 아직까지 엽서 한 장을 무책임하게 어째 버린 일이 없었다. 신작로에서 몇십 리나 떨어져 있는 두메에까지도 편지 한 장을 직접 전해 주러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가는 그였다. 그런 그인지라, 편지가 물에 떨어졌으니 야단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날쌘 물살에 실려 마구 떠내려가고 있지 않은가.

"저런! 저런! 저런!"

판수는 후닥닥 물 속으로 뛰어들어 첨벙첨벙 냅다 편지를 쫓는다. 커다란 가방이 덜렁덜렁 춤을 춘다.

팔을 내뻗으면 얼른 잡을 수 있을 만큼 편지와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일까? 판수는 그만 우뚝 멈추어 서고 만다. 멈추어 서서 숨을 헐떡거리며 그것을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다. ⓐ군청 병사계라는 다섯 글자가 물에 젖어 유난스레 까맣게 돋아 올라 보였던 것이다.

편지는 물결을 타고 가볍게 나부끼며 다시 멀어져 간다. 멀리 사라져 가는 편지를 멀뚱히 바라보고 있던 판수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옳지!"

한다. 그리고 무슨 대단한 결심이라도 하는 듯 어금니를 꽉 지르물며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훅 내뿜는다. 달콤한 술내가 물씬 쏟아져 나온다. 판수는 두 눈을 대고 껌적거리며 손에 든 편지 뭉치를 한장 한장 뒤적이기 시작했다. 뒷겉봉에 군청 병사계라고 씌어 있는 놈이 나오자, 그것을 썩 잡아 뽑는다. 그리고,

"에라잇!"

하고 소리를 내지르며 냅다 물 위에 때기장을 쳐버린다. 그러나, 무게가 없는 것이고 보니 가볍게 물 위에 떠내려간다. 판수는 또 편지 뭉치를 뒤져 군청 병사계를 찾아냈다.

"에라이! 요놈도……."

때기장이다. 그리고 또 찾아낸다.

"요놈도!"

또 찾아내어,

"요놈도!"

또 찾아,

"요놈!"

또,

"요놈!"

또,

"요놈!"

……이렇게 아홉 장을 모조리 물에 띄워 버렸다. 물살을 타고 아홉 장의 군청 병사계가 일렬종대로 동실동실 떠내려간다. 참 희한하다. 판수는 그만,

"왓핫핫하……."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통쾌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오십여 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런 통쾌한 맛은 단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판수였다. 그래서 그는 입을 쩍쩍 벌리며 속이 후련하도록 웃어 젖혔다.

㉠ "왓핫핫하…… 으왓핫핫하……."

한참을 이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웃어 젖히던 판수는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징검다리를 건너려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저 우체부가 돌았나, 우쨌노?"

하고 중얼거렸던 것이다. 노인과 시선이 마주치자 판수는 얼굴이 화끈했다. 왈칵 쑥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아뿔싸!"

싶었다.

'저 노인이 안 봤는가 몰라. 안 봤는가…….'

술기가 말끔 가시는 듯했다. 두 다리에 휘감기는 물이 별안간 몹시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가볍게 몸을 떨며,

"아, 내가 술이 좀 과했던 모양이지."

어쩌고 하면서 밖으로 나간다.

판수가 물에서 나오는 걸 보자, 노인은 입 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며 징검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기 시작한다.

밖으로 나온 판수는 풀밭에 아무렇게나 궁둥이를 내던지고 앉아서 발을 빼었다. 그리고 아랫도리를 벗어서 물을 짜며 편지들이 떠내려간 냇물을 멀리 바라본다.

'괜찮을까 몰라?'

슬그머니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찌— 찌— 찌— 매미란 놈이 또 시끌작하게 울어 댄다.

[중간 줄거리] 판수가 물에 띄워 버린 편지들을, 마침 근처에서 낚시하던 우체국 국장이 발견하게 되고, 판수는 근무 태만으로 면직된다. 그리고 동료인 박씨와 서군은 그와 함께 우체국 근처의 탁줏집에서 술을 마시며 위로한다.

술자리가 거의 되어 갈 무렵이었다. 벌겋다 못해 퍼렇게 굳어진 판수는 혀 짧은 소리로,

"늙었으니 집에서 편안히 쉬라 칸다니까, 편안히……."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두 눈을 무겁게 내리감았다가 뜨며,

"좋지, 집에서 편안히 쉬면 좋고말고……."

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무우쪽을 쿡 찍어 올리며 별안간,

"헛헛헛허……."

웃음을 터뜨렸다.

"편안히 쉬면 좋고말고, 편안히 쉬면, 엇헛헛허……."

서군은 벌겋게 상기된 두 눈으로 판수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박씨는,

"음—"

하고 잔을 들어 또 벌컥벌컥 들이켜 댄다.

"편안히 쉬라고? 엇헛헛허…… 편안히? 으엇헛헛헛허……."

꼭 실성한 사람 같았다. 양쪽 볼을 타고 두 줄기 찝찔한 것이 지렁이처럼 기어 내리기 시작했다.

㉡ "으엇헛헛헛허……."

울고 있는 것이었다.

– 하근찬, 「홍소(哄笑)」 –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② 시간을 역전적으로 배치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높이고 있다.
③ 특정 행위의 반복을 통해 인물의 내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④ 배경과 인물의 심리를 대비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공간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과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하근찬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힘없는 민중이다. 이들은 자신이 처한 부정적 세계에 대해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해 보지만, 세계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의 특성이 종종 '웃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독자는 소설의 맥락 속에서 '웃음'에 담긴 인물의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다.

① ㉠은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군.
② ㉠에서는 부정적 세계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한 것을 통쾌해 하는 심리가 느껴지는군.
③ ㉠에는 자신이 한 행위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드러나 있군.
④ ㉡은 직업을 잃게 된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으로 볼 수 있군.
⑤ ㉡에는 자신의 힘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담겨 있군.

45. 위 글을 공간과 행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간 1]		[공간 2]		[공간 3]
주막		냇가		탁줏집
㉮ 낮술을 마심.	⇨	㉯ 편지를 냇물에 떨어뜨림. ⇩ ㉰ 편지들을 냇물에 띄워서 버림.	⇨	㉱ 술을 마심.

① [공간 1]의 ㉮가 [공간 2]의 ㉰의 원인이 된다.
② [공간 2]에서의 ㉯, ㉰로 인해 새로운 긴장감이 형성된다.
③ [공간 3]에서 판수가 처해 있는 상황은 [공간 2]의 ㉰에 기인한다.
④ [공간 2]의 ㉯에 담긴 판수의 의도가 [공간 3]의 ㉱에서 약화된다.
⑤ [공간 1]의 ㉮와 [공간 2]의 ㉰에서 판수의 심리는 다른 양상을 지닌다.

46. ⓐ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판수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된다.
② 문제 해결에 대한 판수의 의지를 부각한다.
③ 판수의 욕망을 완화시키는 매개로 작용한다.
④ 판수의 내적 성숙의 과정에 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⑤ 이전과는 다른 판수의 행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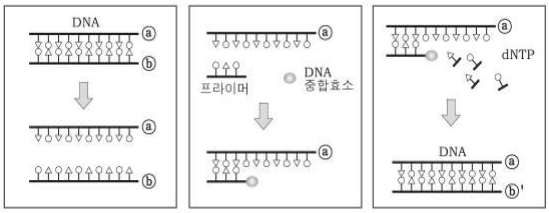
[47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에는 소량의 혈액이나 머리카락 하나로도 친자를 구별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마다 타인과 구별되는 유전자 지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량의 혈액이나 머리카락 하나에 담긴 DNA의 양은 매우 적으므로 유전자 지문을 분석하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면 필요한 DNA를 다량으로 얻을 수 있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이란 'DNA 중합효소'라는 촉매*를 통해 DNA를 짧은 시간에 다량으로 복제하는 방법이다.

DNA는 두 개의 긴 가닥이 사다리모양으로 얽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부에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의 네 종류 염기들이 짝을 이루어 결합되어 있다. 이 때 아데닌은 구아닌과, 시토신은 티민과만 결합하는데 이러한 염기의 결합을 상보적 결합이라고 한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이러한 결합의 속성을 활용하여 DNA를 복제하는 것이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위해서는 미리 ㉠ '프라이머'와 많은 양의 ㉡ 'dNTP'를 준비해야 한다. 프라이머란 '복제하고자 하는 DNA'의 일부와 상보적 염기서열을 가진 짧은 DNA 조각인데, 중합효소 연쇄반응 시 복제하고자 하는 DNA와 결합하여 DNA 복제의 시작점이 된다. 또한 dNTP는 염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DNA를 구성할 수 있는 재료가 되어, 짧은 조각에 불과했던 프라이머에 순차적으로 붙어서 한 가닥 DNA가 된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시작하려면 먼저 복제하고자 하는 DNA와 프라이머, dNTP, DNA 중합효소 등을 시험관에 담는다. 이후의 과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에서는 시험관에 95~97℃의 열을 가하여 복제하고자 하는 DNA를 두 가닥으로 분리한다. 2단계에서는 온도를 50~60℃로 낮추어 1단계에서 분리된 한 쪽의 DNA 가닥(ⓐ)이 이것의 일부와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가진 프라이머와 결합하도록 한다. 이어서 DNA 중합효소가 프라이머에 붙으면서 DNA 복제를 준비한다. 3단계에서는 온도를 다시 70~72℃ 정도로 높여 ㉢ DNA 중합효소를 활성화시킨다. DNA 중합효소는 복제하고자 하는 DNA의 염기서열을 읽은 후, 이와 상보적인 염기를 지닌 dNTP와 프라이머의 결합을 촉진시킨다. 이를 통해 프라이머의 끝부분에서부터 dNTP의 결합이 순차적으로 ㉮ 일어나 또 하나의 DNA 가닥(ⓑ')이 만들어짐으로써 DNA의 복제가 완성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복제하고자 하는 한 개의 DNA는 2^1, 2^2, 2^3……2^n개가 되므로 다량의 DNA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필요한 DNA를 짧은 시간에 다량으로 복제할 수 있는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의료, 범죄 수사, 분자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촉매 :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매개하여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

4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
①	복제의 대상	복제의 시작점	반응 촉진 물질
②	복제의 대상	DNA의 재료	복제의 완결점
③	복제의 시작점	DNA의 재료	반응 촉진 물질
④	복제의 시작점	반응 촉진 물질	복제의 완결점
⑤	복제의 완결점	복제의 대상	DNA의 재료

[48 ~ 49]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다음과 같이 과학 노트를 정리하였다. 48번과 49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학습 주제 :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한 DNA의 대량 복제
○ 학습 내용
가. 중합효소 연쇄반응의 효용과 개념
나. 중합효소 연쇄반응의 과정
– 1단계 전 복제할 DNA, 프라이머, dNTP, DNA 중합효소 등을 시험관에 넣음. …… (ㄱ)
<1단계>
– 얽혀 있던 DNA가 두 가닥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남. …… (ㄴ)
<2단계>
– 이전 단계에서 분리되었던 두 가닥의 DNA가 다시 결합함. …… (ㄷ)
<3단계>
– 활성화된 DNA 중합효소는 dNTP와 프라이머의 결합을 촉진시킴. …… (ㄹ)
– 3단계까지 진행되면 최초 DNA의 2배가 됨. …… (ㅁ)
○ 심화 학습 과제 : [A]

48. (ㄱ)~(ㅁ)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49.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DNA의 아데닌은 어떤 염기와 결합할까?
② DNA의 내부는 몇 종류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을까?
③ DNA 중합효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온도는 몇 도 정도일까?
④ 중합효소 연쇄반응에 걸리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
⑤ 분리된 한 쪽의 DNA 가닥과 프라이머 중 길이가 긴 것은 무엇일까?

50. ㉮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1점]

① 그녀는 어제 아침 일찍 일어났다.
② 그는 일 년이 지나서야 병상에서 일어났다.
③ 그녀는 화가 나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④ 그 증상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일어났다.
⑤ 아버지 대에 이르러 그의 집은 크게 일어났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